



iLED

Tuesday News

2016-2호

2016. 4. 26

편집인 : 한형종

월간 HRD 4월 Column



현재에 도래한 미래의 기업 이러닝 설계

글_임철일 교수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기업의 맥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교육혁신 중 하나이다. 이 MOOCs의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edX'로 그곳에서 활용하는 고성능의 'edx플랫폼'에 내재된 특성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edX'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HRDer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edx플랫폼'의 특성이 있다. 바로 교수설계자, 혹은 HRDer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습활동설계를 쉽사리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로 이러닝과 관련한 기업의 HRDer가 직면한 대표적인 과제는 '어떻게 적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가'이다. 전통적인 교수설계 절차를 거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시 기업의 이러닝 시스템에 올려서 학습자들이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적시에 교육을 제공하기가 까다롭다. 여기서 해결방향 중 하나로 탐색되는 것이 '학습설계시스템'의 구축이다. '학습설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 구성원의 역량향상에 필요한 이러닝 콘텐츠가 상당량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나, 사용 가능한 무료 이러닝 콘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기반이 생겼다. 과거에 비해 동영상 강의 등 이러닝 콘텐츠를 간단한 도구로써 개발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수많은 콘텐츠 중 기업의 구성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찾아서 적시에 제공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이다. '학습설계시스템'은 HRDer의 클릭 몇 번으로 기업 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러닝 콘텐츠를 기업의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컨대 요구분석 및 자료탐색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마케팅 관련 이러닝 콘텐츠가 확보되었다고 하자. 이때 HRDer는 '학습설계시스템'에 접속해서 클릭 몇 번으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오픈하는 것은 물론 연습 문제 추가와 온라인 토론방 개설 등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콘텐츠는 일종의 자원으로 존재하게 되며, HRDer는 이러한 자원을 쉽게 찾아 학습자에게 필요한 질문이나 의견 공유 등 학습활동을 추가적으로 설계하여 공급할 수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 이러닝 콘텐츠의 선택과 학습활동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설계시스템'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edx플랫폼'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 학습자의 입장이 아니라 교수설계자, 혹은 HRDer 입장에서 'edx플랫폼'에 접속하면 그것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직시할 수 있다. 교수설계자, 혹은 HRDer는 클릭 몇 번으로 기존의 동영상 강의 제공 및 질문방 등을 생성해서 학습자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설계시스템'의 기능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고, 실제 몇몇 대학에서 사용하는 학습관리체계, Moodle(modular object-oriented dynamic learning environment)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이 시스템 역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강의 자료(파일, URL링크, 동영상 등)와 학습활동(과제, 게시판, 토론 등)을 클릭 몇 번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나 가능했던 학습활동설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학습활동설계의 실재를 통해 기업 이러닝의 미래 또한 짐작해볼 일이다. HRD

매달 발간되는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간행물 중 하나인 월간 HRD 4월호에 교수님의 글이 Column에 실렸습니다. 특히, 현 기업 교육 및 HRD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이러닝 설계 및 개발을 위한 핵심 아이디어로 플랫폼(Platform) 및 학습 설계(Learning Design)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교수체제설계 : 플립러닝 적용



2016/1학기 매주 월요일 교수님의 교수체제설계 강좌가 운영됩니다. 특히, 이번 학기 강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인 연계 전략과 학습자의 상호작용 기반 다양한 활동 등을 반영하여 보다 최적화된 고등교육 맥락에서의 플립 러닝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관악 교육 인사이드



이 페이지에서 게시물 검색

사람

좋아요 298개

정보

<http://learning.snu.ac.kr/>

정보 [?]

사진



관악의 교육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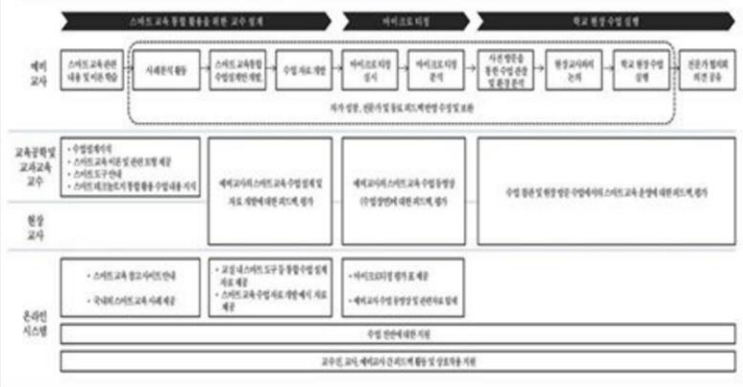
4월 19일 오후 10:28 ·

<스마트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예비교사 역량 향상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임철일 교수의 “스마트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예비교사 역량 향상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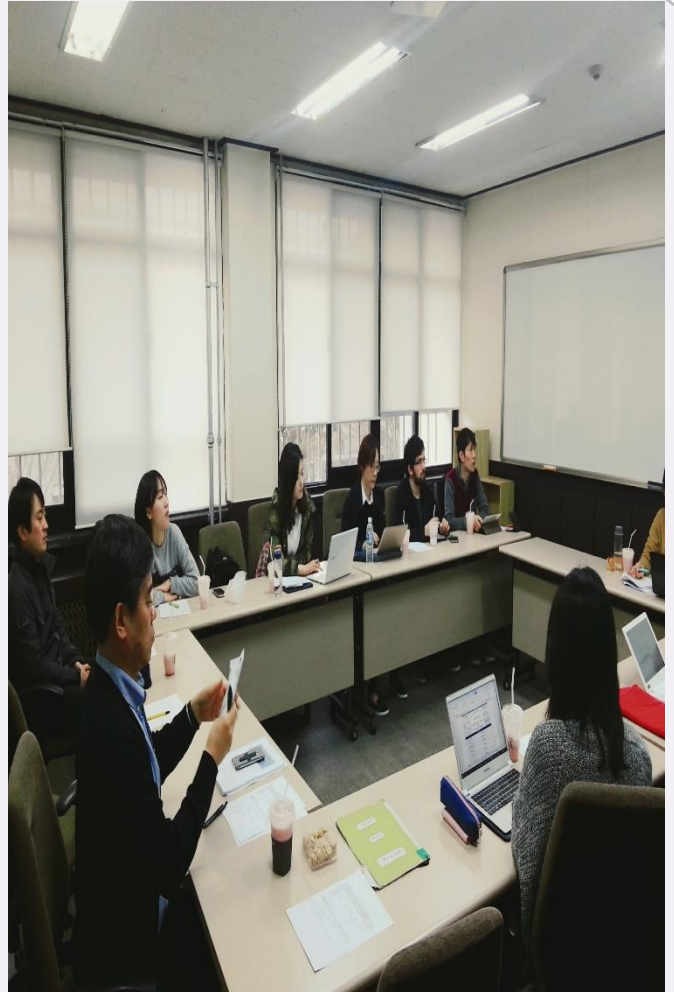
이 연구는 예비교사의 스마트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와 개선점을 탐색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최근 학교교육 맥락 전반에 있어 스마트 교육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스마트 교육에 대한 주요 연구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비교사의 스마트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형성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2015년 2학기 서울 소재 S 대학교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강좌를 수강하는 총 13명의 예비교사들에게 적용하면서... [더 보기](#)

예비교사의 스마트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모형



교육학과에서 운영중인 관악 교육 인사이드에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스마트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예비교사 역량 향상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가 게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snuedinsight/>)

연구실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동안 연구실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연구실 세미나 시간에는 교육공학 최근 이슈에 대한 선생님들의 발표와 의견 공유 및 논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조부희 선생님의 MOOC 평가 전략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욱 선생님의 모습도 찰칵^^

Kay 교수(AECT 회장)

초청 특강



4월 19일, 교육공학연구회 및 교육학과 교육연구소 공동 주최로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AECT) 회장인 Kay(Ph, D., Instructional Technology, University of Wyoming)을 초청하여 Using instructional design process to develop curricula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Kay 교수(AECT 회장)

초청 특강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맥락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 설계 과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6 ICET 국제학술대회



4 월 20 일 -21 일 , 고 려대 학 교 인 촌 기 념 관 에서 2016 ICET(International Conference of Educational Technology) 국제학술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Rethinking educational technology in the smart learning environment” 을 주제로 교육공학 관련 최근 동향으로서 플립 러닝, 로봇 활용, 스마트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 ICET 국제학술대회



본 학술대회에서는 임철일 교수님과 홍미영 선생님, 그리고 이찬미 선생님의 “Development of design strategies using 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in an engineering course” 주제로 공학교육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지원 시스템의 활용과 설계 전략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 ICET 국제학술대회



또한, 임철일 교수님께서 ‘Critical issues for success in open, smart, and social learning environments’ 에 대한 패널 토론(Panel Discussion)에 참여하시어 최근 MOOC 등 오픈 형태의 학습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는 학습 설계(Learning Design)에 대해 핵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16 ICET 국제학술대회



이와 함께, Invited session의 좌장(Chair)으로 스마트 로봇 설계 주제 발표 운영과 더불어 감성, 스마트 도구 등이 반영된 로봇 활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의 논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생 선생님 인터뷰

: 정다운 선생님



Q 안녕하세요 정다운 선생님^^ 대학원 생활이 두 달이나 지났네요~ 대학원 생활은 어떠신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두 달 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일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진 것인데요. 특히 교육공학 전공에 함께 입학한 동기들이 참 좋아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동기 선생님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도 다들 쿨하게(?) 나름의 방식으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Q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듣고 수업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학기에는 나일주 교수님의 교육공학기초, 임철일 교수님의 ISD수업, 하여진 선생님의 교육통계분석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모레가 통계 시험이에요...ㅎㅎ 학부 때 한 번 들었는데도 다시 들으니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워요. 이번 학기를 마치면 양적 연구 방법과 SPSS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공학기초 시간에는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의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교육공학에 대해, 더 나아가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고 나면 교육공학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조금은 성숙해져 있겠죠? ISD 수업을 통해서도 아무래도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신입생 선생님 인터뷰

: 정다운 선생님



Q 공부하고 싶은 주제와 참여하시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아직 딱 한 가지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 저것 새로운 연구를 볼 때마다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려대에서 열린 ICET 학회를 가서도 교육공학 분야 다양한 연구 주제의 발표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 관심 주제를 꼽자면 예비교사 교육인데요. 각종 교육방법/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예비교사 교육에 어떻게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T프로젝트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석사과정 동안의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교육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대학원 그리고 교육공학 전공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 약 두 달 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벌써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전문성에 대한 갈급함이 해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교수님이나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못 알아 듣는 말도 많지만 앞으로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는 researcher/practitioner로서의 저의 진로를 좀 더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 쯤엔 교육공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제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 인생에 있어 좋은 인연들도 만들고 싶구요.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선생님 인터뷰

: 조부희 선생님



Q 안녕하세요 조부희선생님^^ 대학원 생활이 2달이나 지났네요~ 대학원 생활은 어떠신가요?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잘할 수 있을까 란 걱정이 가득했었는데 두 달 생활해보니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예쁘고 멋진 교정을 거닐고, 너무 맛있는 학식들과 좋은 기숙사시설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아티클을 읽고 매주 주어진 과제를 해내는 것이 아직도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꾸준히 하면 된다는 생각에 욕심부리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소와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들이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찾으며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모든 식당의 학식을 다 먹어보는 것이 목표인데 할 수 있을까요?^^ 옆의 사진은 나일주 교수님 코스역에서 아웃팅을 나갔을 때 동기들과 서로 찍어준 것입니다. 사진 속의 저와 같이 2년 동안의 대학원 생활이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Q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듣고 수업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학기에는 임철일 교수님의 ISD수업, 나일주 교수님의 교육공학 기초를 수강하고 있고, 여름 계절학기로 교육통계수업을 들을 계획입니다. 현재 ISD수업에서는 실제 CJ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팀장을 맡고 있고 부담감이 느껴지지만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보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어지는 다양한 과제를 통해 제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육공학 기초 시간에는 교육공학 이론의 근본이 되는 다양한 개념에 대해 학습합니다. 나일주 교수님의 깊은 통찰력을 통해 교육공학의 학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선생님 인터뷰

: 조부희 선생님



Q 공부하고 싶은 주제와 참여하시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교육공학의 학문을 석사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입학 전에는 협동학습환경 설계, 교사교육 분야에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시작하니 신세계가 열린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의 설계, 학부모와 교사 교육, 인성 교육, 평가, MOOCs, VR등의 최신 교육 트렌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점을 맞추어 관심분야를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T프로젝트와 C프로젝트입니다. 특히 T프로젝트의 경우 문헌공부나 현장 경험을 적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석사과정 동안의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2년 동안 훌륭하신 분들과 배움을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많이 배워나가야 하고, 많이 채워나가야 함을 느낍니다. 제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웍에도 충실히 임하고, 프로젝트에서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한다면 1년 뒤 조금은 성장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맡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존경하는 교수님들, 선배님들 더불어 똑똑하고, 착한 동기들과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신입생 선생님 인터뷰

: 송아름이 선생님



Q 안녕하세요 송아름이 선생님^^ 대학원 생활이 2달이 지났네요~ 대학원 생활은 어떠신가요?

사실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송아름이 선생이라는 호칭부터 너무나 어색했어요. 10년을 넘게 軍 조직에 있다가 학교에 오게 되니 일상부터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인지 (원래 소질이 없어 선지^^) 두 달이 지났건만 공부가 생각처럼 잘 되진 않아요. 과제를 하고 수업의 진도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흥분되고, 조금 늦었지만 이런 좋은 기회가 내게도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듣고 수업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학기에는 임철일 교수님의 ISD수업, 나일주 교수님의 교육공학 기초 수업, 하여진 선생님의 교육통계 수업을 대학원수업으로 듣고 있어요. 학부에서 교육학 전공을 하지 않은 이유로 소경희 교수님의 교육과정 학부수업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네 과목이나 듣느라 조금 부담이 되는건 사실이지만 이번 학기를 통해서 교육학 그리고 교육공학의 세계에 퐁당 빠져들고 나의 관심분야를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선생님 인터뷰

: 송아름이 선생님



Q 공부하고 싶은 주제와 참여하시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사실, 여전히 교육공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 싶은지도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까지 알게된 내용 중에서, 교수설계 분야와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임철일 교수님의 ISD 수업시간에 진행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과정 연구 외에는 다행히(?) 아직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열심히 내공을 쌓아서 다음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구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석사과정 동안의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2년 동안 공부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개인의 발전으로 그치지 않고 나중에 군으로 복귀하여 조직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과정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되도록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다소 출발이 늦었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나태해졌는데... 각오를 쓰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또 신입생 동기들과 벌써 군대 동기들 못지않은 전우애가 생긴 것 같은데, 군으로 가서도 계속 남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NEWS



◆ 연구실 세미나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 장소: 12동 소세미나실 (예정)

◆ 교육학과 홈커밍데이 및 등산대회

- 일시: 2016년 5월 5일(목)
- 장소: 서울대학교 기숙사 운동장

◆ 2016 교육정보미디어 춘계학술대회

- 주제: 교육미디어의 재조명: 담론과 실천에 대한 성찰
- 일시: 2016년 5월 28일(토)
- 장소: 경희대학교